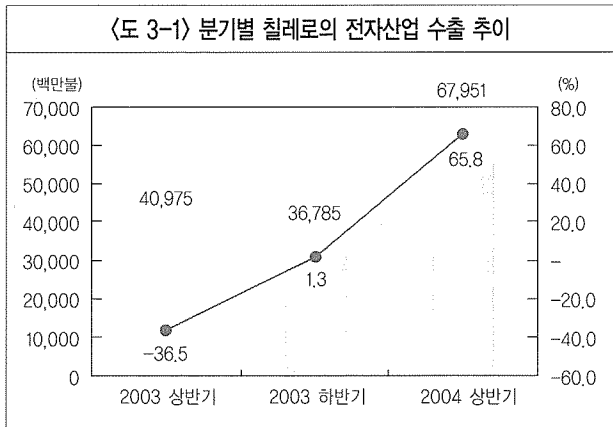


FTA 이후 칠레와의 수출입 변모

전자산업연구소

▶ 상반기 전자산업 수출 양상

○ 전반기의 마이너스에서 금분기에 플러스로 전환하였다.



우리나라와 중남미에 위치하고 있는 칠레와의 FTA(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전후한 전자산업의 수출은 상당히 호조를 나타내었고, 한·칠레간 FTA는 지난 4월부터 발효되었기 때문에 FTA로 인한 양국간 교역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칠레에 수출한 전자산업기기는 2003년 상반기에 4,097만불로 전년동기보다 36.5% 감소하였지만, 금년 상반기의 수출은 6,795만불로 전년동기보다 65.8% 증가하였으며, 일단 한-칠레FTA가 우리나라의 전자산업의 수출을 촉진시킨 것으로 객관적 지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표 3-1〉 칠레로의 전자산업 수출 추이

(단위 : 천불,%)

품목명	2003 상반기		2003 하반기		2003년		2004상반기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산업용	13,212	-52.8	17,588	46.7	30,800	-22.9	32,692	147.5
가정용	23,765	-28.1	17,332	-20.2	41,097	-25.0	31,370	32.0
전자부품	3,998	14.0	1,865	-28.2	5,863	-4.0	3,889	-2.7
전자산업	40,975	-36.5	36,785	1.3	77,760	-22.9	67,951	65.8

○ 부문별로 차이

전자산업을 부문별로 나누어볼 때, 다소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산업용과 가정용 전자산업은 금년 상반기에 플러스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였지만, 전자부품의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산업용과 가정용의 비중은 거의 절반씩을 차지하고 있다.

금년 상반기 산업용의 칠레로의 수출은 3,269만불로 전년동기보다 무려 147.5%나 급증하였고 이러한 세 자리 수의 증가율은 세 부문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며 작년의 경우 산업용 수출은 전년동기보다 52.8%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가정용이 3,137만불로 32.0%로 증가하였으며 작년 상반기에 가정용의 수출은 28.1% 감소된 바 있으며 한편, 전자부품의 수출은 388만불로 2.7% 감소되었고, 전자부품의 수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나, 작년 상반기에는 14.0% 증가하였다.

▶ 상반기 전자산업 수입

○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우리나라와 칠레와의 FTA(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전자산업의 수입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수출과 마찬가지로 수입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칠레로부터 수입한 전자산업기기는 2003년 상반기에 24만불로 전년동기보다 61.7% 감소하였지만, 금년 상반기의 수출은 42만불로 전년동기보다 74.3% 증가하였으며 규모면에서는 수입이 수출에 비해 매우 미미한 편이나, 증가율에서는 수입이 수출보다 큰 편이다.

〈표 3-2〉 칠레로부터 전자산업 수입 추이

(단위: 천불,%)

품목명	2003 상반기		2003 하반기		2003년		2004상반기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산업용	144	-77.4	15	-85.8	159	-78.7	4	-97.2
가정용	1	-47.8	2	-60.0	3	-47.5	18	2,603.1
전자부품	100	-	1,027	-	1,127	255,439.2	405	304.5
전자산업	245	-61.7	1,044	840.5	1,289	71.6	427	74.3

○ 가정용, 전자부품은 급증

수출과는 달리 수입에 있어서는 가정용과 전자부품의 수입증가율이 네 자리, 세 자리 수의 급증을 보였음. 반면, 산업용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산업용의 칠레로부터의 수입은 4천불로 전년동기보다 97.2% 감소하였다. 그리고 가정용의 수입은 18천불로 2,603.1%나 증가하였으며 가정용의 수입은 전년 동기에 2천불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증가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전자부품은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고 금년 상반기의 전자부품 수입은 40만불로 전년동기보다 304.5%나 증가하였으며, 작년 상반기에 전자부품의 수입은 10만불로 전년동기와 유사하였다.

〈표 3-3〉 칠레로의 5대 수출품목 추이

(단위: 천불,%)

품목명	2003 상반기		2003 하반기		2003년		2004상반기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휴대용전화기	10,275	-56.6	12,865	75.6	23,140	-25.4	25,215	145.4
세탁기	10,444	-20.1	3,775	-33.9	14,219	-24.3	11,470	9.8
컬러TV	3,067	-65.2	4,182	-21.2	7,249	-48.6	5,011	63.4
비디오카메라	2,003	84.5	1,643	16.1	3,646	45.8	4,114	105.4
냉장고	2,251	-29.7	2,878	-31.3	5,129	-30.6	3,721	65.4

➤ 휴대폰전화기 수출이 1위

칠레로 가는 전자산업 품목 중 5대품목을 살펴보면, 휴대폰전화기의 수출이 1위를 점하고 있으며 휴대폰은 산업용에서 약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수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방대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상반기의 휴대용전화기 수출은 1,027만불로 전년동기보다 56.6% 감소하였으나, 금년 상반기에는 2,521만불로 전년동기보다 145.4%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휴대폰전화기 수출은 작년 상반기에는 줄었지만, 작년 하반기

기부터 증가율은 플러스를 지속하고 있고 휴대용전화기는 금년 4월부터 FTA의 체결로 관세철폐의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금년 상반기의 수출 규모별 상위 5대품목에서 2위는 세탁기, 컬러 TV, 비디오카메라, 냉장고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상위 4개 품목은 공히 가정용으로 국산 가전용 전자기기들이 칠레시장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세탁기의 수출은 작년 상반기 1,044만불로 전년동기보다 20.1% 감소하였으나, 금년 상반기에는 1,147만불로 9.8% 증가하였고 지난해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를 비교해보면, 컬러TV의 경우 306만불 65.2% 감소에서 501만불 63.4% 증가로, 냉장고도 225만불 29.7% 감소에서 372만불 65.4% 증가로 각각 바뀌었으며 비디오카메라의 경우는 작년 하반기에 200만불 84.5% 증가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도 411만불 105.4% 성장으로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 FTA 전자산업의 수출증대효과

지난 4월 1일부터 발효된 한-칠레 FTA는 양국간 전자산업의 수출입 증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FTA를 통한 무역효과가 이미 금년 상반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칠레는 휴대용전화기, 컴퓨터 등 전체 품목의 41.8%인 2,450개 품목의 한국 수입관세를 철폐하였으나 냉장고와 세탁기는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금년 상반기 수출 실적에서, 관세가 철폐된 휴대용전화기, 비디오카메라, 컬러TV 등은 크게 호전되었으며,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냉장고와 세탁기의 수출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산 전자기기의 품질이나 성능, 그리고 가격경쟁력이 칠레에서 향상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FTA는 우리나라의 주도산업인 전자산업의 수출시장을 확대함으로써 수출 증가와 국내 경제에의 기여도가 매우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칠레는 우리나라에 비해 전자산업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FTA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반면, 전자산업의 선진국들과 FTA를 체결할 경우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의 여부는 주도면밀히 관찰되어야 할 것이다. 🕒